

#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14시 06분



# 목차

목차	2
여수한뉴스 - 전체	3
여수시, 수산에 활력 불어 넣는다!	3

## 여수시, 수산에 활력 불어 넣는다!

2023.03.13 조회수 695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담당자 강정민 연락처 061-659-3906

과거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기 이전 여수는 전라남도 제일의 수산도시였다. 하지만 최근 여수 수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어장 생산성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적조와 여름철 고수온, 겨울철 저수온 등 복합적이고 예측불허의 원인들로 어업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민선8기 여수시가 수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여수인근 바다의 환경정화를 통해 깨끗한 어장을 만들고 어업경영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양식업의 현대화 및 자동화와 수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수산관련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수산업진흥센터팀과 청정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화팀까지 신설하는 등 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과연, 민선8기 여수시가 여수수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가치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를 실시한다. 기존 수산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어가와 선원 등 영세어업인에 120만원 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총 허용어획량(TAC)준수 및 수산자원을 적극적 보호하는 어선 어업 단체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2톤 이하 150만원, 톤수별 차등 지원)’을 지급한다.

각종 수산재해보험을 가입한 어업인들에게 총 8억7천만원을 지원해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으로 어선 1200여척과 선원 3600여명, 어업인 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선어업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어선 12척을 감척한다. 감척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등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자동소화장치(사업비 8천8백만원)와 유류절감장치(사업비 4억 6천만원)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어업인은 지원비를 제외한 40~50%만 부담하면 된다.

### ■ 수산자원 회복 대책 강화 및 현대화·자동화

일손부족과 경영비 부담 증가 때문에 체질개선이 필요한 양식어업 분야를 현대화하고 자동화한다. 양식어가에 자동사료급이기와 자동선별기 등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가두리양식장 현대화를 위한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양식장 모델 개발 및 ICT융합 실시간 모니터링, 무인 어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상시 인력을 절감하고 어업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양식어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 회복 대책도 강화한다.

(<http://www.yeosu.go.kr>)



수산물의 품질 제고에 노력한다.

올해 9억여 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어종인 돌돔과 보리새우, 해삼 등 7종 약 240만 마리를 관내 조성된 바다숲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에 방류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남해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방류품종 및 장소 등에 대해 협의해 마을어촌계가 선호하는 정착성 소득형 품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돌돔과 농어 등 어류 종자 318만 마리와 전복 종자 184만 마리, 바지락 종자 96톤을 살포한다. 갯녹음으로 황폐해지는 연안에는 해조류를 이식하고 해적동물을 구제하여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정원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수산물 생산기반인 양식어장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 올해 말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가막만 해역 내 500헥타르의 양식어장과 공유수면 저질에 퇴적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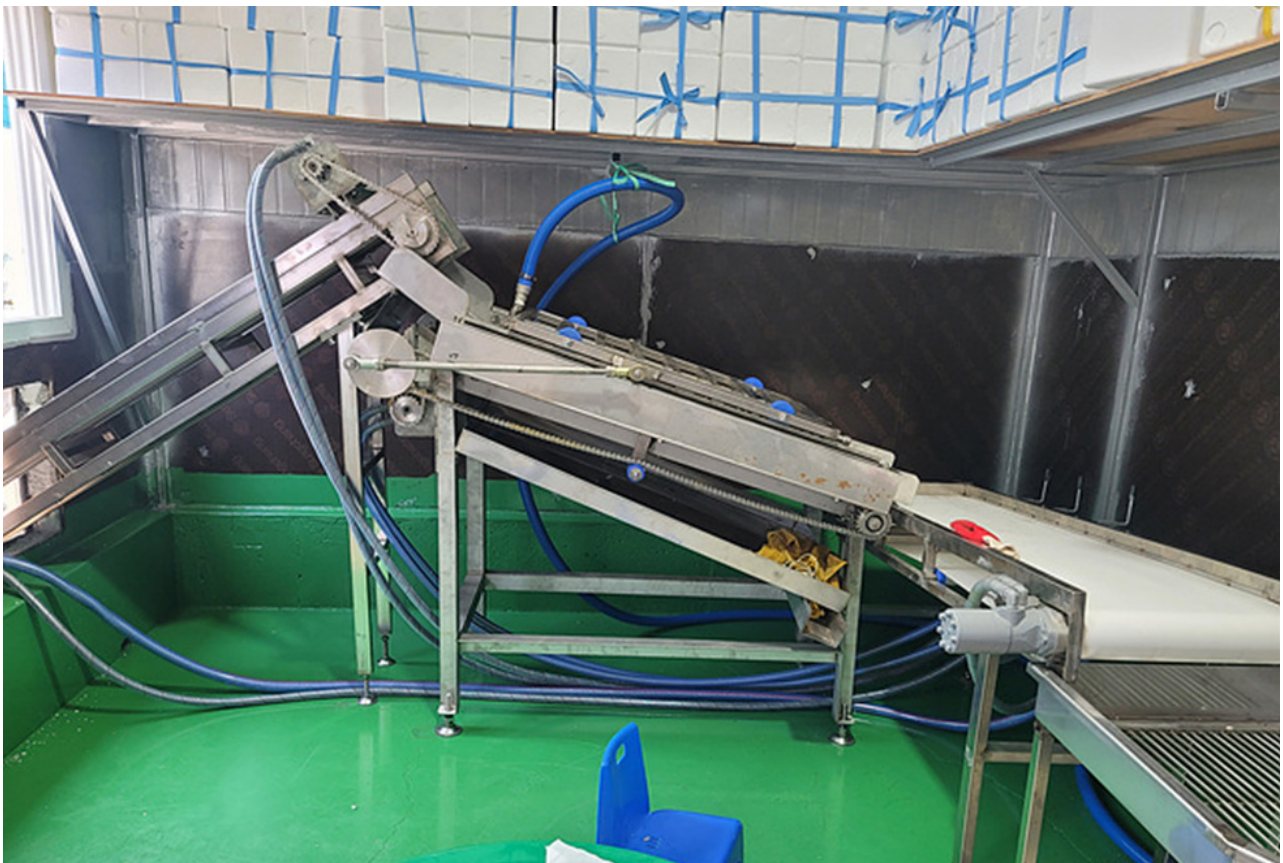
여수항협의 안전성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합성수지 재질의 부착기 190만개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억 원이 투입된다. 완전 교체를 위해서는 약 7200만개(약 25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제로화 방침으로 인해 올년 11월부터는 모든 양식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여수수협 건어를 청정위판장과 거문도 수협 위판장 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건립해 여수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방사능 검사를 올해 160회(작년 94회)로 확대 실시하고, 오염수가 우리 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산물안전센터 건립도 검토 중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최근 일어난 여수 양식장 폐사처럼 복합적이고 예측불허의 원인들이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요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산정책을 적극 펼쳐 여수 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1-1 여수시, 수산에 활력 불어 넣는다!.jpg (360 hit/ 428.7 KB) ↓
- 1-2 여수시, 수산에 활력 불어 넣는다!.jpg (365 hit/ 508.6 KB) ↓
- 1-3 여수시, 수산에 활력 불어 넣는다!.jpg (364 hit/ 380.8 KB) ↓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전글

< 여수항, 코로나 19 이후 국제크루즈 '첫' 입항

다음글

여수시, '세계적 수준' 샌디에이고 항만운영 사례 ... >

---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 Yeosu Web Contents



여수시